

박준수의 淸談直筆

청담직필



본사 사장·경영학박사

신축년 벽두, 남도는 지금 하얀 설국(雪國)이다. 햇빛은 대지가 눈이복속에 포근히 잠들어 있다. 소백산맥의 즐기기 무등산, 월출산은 들집승처럼 낮게 허리를 굽히고 잔뜩 웅크리고 있다.

지난 경자년 한 해 코로나19로 만신창이가 된 남도의 대지는 신축년 새아침 다시 순결하게 가슴을 열었다. 정한수 떠돌고 기도하시는 늙은 어머니의 손길이 우리의 지치고 아픈 마음을 다독인다.

한(恨)과 신명의 땅 전라도

남도의 질긴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가. 한(恨)과 신명이다. 한(恨)은 역동력이요, 신명은 떨치고 일어남이다. 수천년 극과 극의 에너지가

분출해온 곳이 남도땅이다. 대지에 귀 기울여 보면 백제의 말발굽소리가 아련히 들려온다.

서해 바다에선 장보고의 기상이 찬란히 빛나고 있다.

고려시대 황룡전쟁의 마지막 불꽃이 피어난 곳이 반도 남단 진도이며, 조선시대 임진왜란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켜낸 곳 역시 전라도이다. 이순신 장군이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고 언급한 것은 호남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가를 말해준다.

구한말 아래 100여년간 한반도에서 가장 번곡점이 높았던 곳이 전라도이다. 전북 고부에서 말파쇄 들불처럼 번진 동학농민운동, 제주 4.3 항쟁 진압을 거부하다 피의 이념대결로 얼룩진 여순사건, 전두환 군사독재에 변연히 맞서 싸운 광주 5.18 항쟁이 모두 남도땅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이다.

뿐만아니라 5년전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혁명 역시 호남인이 가장 앞장 서서 역사의 물길을 열었다. 그리고 호남은 2017년 대선 당시 호남의석을 석권한 안철수 대선 문제를 선택했다. 그 이면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과 향수가 있었다. 그만큼 호남인은 측은지심이 깊다.

남도의 새벽에 묻는다

하지만 호남인은 역사를 바꾸었을 뿐 적박한 남도땅을 따스한 햇살 스며드는 양지로 개척하지는 못했다. 호남의 민초들은 뉘그러처럼 말한다. "문재인정부 5년차에 접어들어 현재 크게 달라진게 뭐가 있나?"고. 가장 기대를 모았던 공군항이전문제는 꼬이다 못해 시·도간 갈등만 깊어지고 '혁신도시시지존?'는 진척이 없어 답답하다.

광주형일자리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낮은 임금을 경쟁력으로 단순 임가공형태의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호남출신 인사로 대거 등용하고, 5·18 특별법제정, 광주인공지능(AI)중심도시와 전남 불투이코노미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애쓴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영남과 충청권에 비하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도 나름 해명이 있을 것이나 지역민이 제각각은 온도차는 상당히 차가운 것 만은 사실이다. 게다가 인구확적인 측면에서도 광주·전남·북은 급속한 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가 낳은 결과이지만 전라도에 인구를 유인할만한 생산기반이 취약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남은 임기동안 격차 해소기대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이 온도차를 좁히기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발맞춰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지역민이 청사진을 만들어서 적극 소통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이제 우리는 2021년 다시 역사의 분수령에 서있다. 다시 대지 위에 한(恨)과 신명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새날을 써야하는 촛불앞에 서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촛불은 가녀리고 미약하다. 새벽 첫닭이 울었으나 미명의 그림자는 터널처럼 깊고 길다.

그래서인지 코로나19 확산 여지를 위해 당국의 산행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마도 순백의 산경에서 새해 상서로운 기운을 심호흡하며 코로나로 억눌린 울화를 털어내고 자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직접 산행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눈덮인 남도의 우람한 설산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어본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가 코로나의 악몽을 떨쳐내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남도땅에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를. 또한 신축년 남도의 새벽에 묻는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어디인가"라고.

社說
코로나 집단감염 요양병원 방역 허점 없도록

새해 벽두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광주시와 중앙상수도본부가 합동회의를 여는 등 사망자 최소화 및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섰다.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만 일일 최다를 기록했으며, '2차 전파' 사례까지 파장이 만만치 않다. 광주는 연일 두 자릿수 감염이 이어지는 추세로 위기가 커지고 있다.

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요양병원 및 시설, 정신병원에 대해 면회를 금지하고, 외부인 출입통제, 타 시설 방문 및 사적모임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 정부가 새로 마련한 '요양병원 긴급 의료 대응계획'에 따라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대신 확진자 이송과 비접촉자 전원 조치를 취했다. 확진자는 전국 각지의 치료 병상으로 이송되고, 비확진자인 입원 환자는 다른 요양병원으로 분산 배치됐다.

시는 고위험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2주 1회에서 1주 1회로 주기를 강화하고 대상도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양로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과태료 부과, 운영중단 명령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광주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당국은 방역 대책은 물론 중증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에 초비상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및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는 17일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일상 멈춤이 계속된 새해에도 코로나의 생활 속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지역사회 감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만일 증상이 있거나 의심스럽다면 시정과 각 구청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도 받아야 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특성상 종사자 등이 직업윤리의를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었으면 한다. 이 참에 방역에 허점이 없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역량을 재차 결집해야 할 때다.

인공지능 광주시대, 그 화려한 서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상할 수 없었던 AI 광주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이다. 2021년, 인공지능 중심 광주형 디지털 뉴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는 첨단3지구에 컴퓨팅 연산능력 88.5PF(페타플롭스), 저장용량 107PB(페타바이트)를 구축해 스타트업, 중소 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연산능력만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보유한 국내 최대 슈퍼컴퓨터 누리온 5호기(세계17위)의 25.7페타플롭스의 3배 이상의 수준이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개발도구는 물론,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레이크와 빅데이터 기능도 제공한다. 연구개발센터를 광주에 설립하며, 2029년까지 매년 30명이상 지역인재도 뽑는다.

광주 집적단지 핵심시설이 될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자 NHN(주)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 발전

시키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을 하거나 계획된 65개 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광주시도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는 지난 2019년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 1월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박차를 가해왔다. 그리고 2021년 해 해 데이터센터가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그 서막을 열게 됐다.

시는 15대 주요정책 방향 중 첫번째로 꼽고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첨단 3지구에 들어서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인공지능융복합단지(2025년까지 4천116억원(10년간 1조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한다.

광주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인공지능산업만이 낙후된 지역이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라는 혁신적 예측 아래 미래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AI 4대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며 기업들과 인재들이 찾아오는 경제1번지의 원대한 꿈이 무르익고 있다.

아사(餓死) 직전인 소상공인

취재수첩



최한준 (경제부 기자)

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또다시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으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에 이어 음식점 등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남의 가게를 빌려 장사를 하는 임차인 10명 중 8명이 달하는 광주지역 특성상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연말 대목을 날린 자영업자와 영세상인 등에게는 가슴 아픈 소식이 될 수 있다.

연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재난에 이미 매출 부진 등 경영난 악화로 벼랑 끝에 서 있

는 처지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임대료를 매달 지출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한국신용데이터가 분석한 자료 등을 보면 지난해 12월21~27일 기준 광주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월대비 50.55% 감소해 반 토막 수준이 됐다.

전주와 비교해도 30.63% 매출이 하락했으며, 3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4.8%를 기록하는 등 1분기(13.7%) 2분기(14.5%)에 이어 3분기 연속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 등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모르는 마당에 소상공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100만~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비등록자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저금리 대출 지원책은 자칫 빚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어서다.

임대인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세계 혜택을 넘어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朴俊洙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李庚秀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인문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인문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기고



이동우 호남대 물리치료학과 교수

건강, 절대 잃지 말아야 할 '최후의 보루'

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다른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심뇌혈관계 질환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고혈압, 당뇨병 등 선형질환 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다양한 혈관질환을 포함한다.

3대 혈관질환이라 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나 잠재적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성 감염을 통해 갑작스런 상태악화와 합병증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체 활동 부족이 장기간 지속되면 혈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발생시키거나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활동이 위축된 지금 혈관질환의 조기발견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자신만의 운동법을 통한 건강유지는 필수적이다.

순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신체활동과 운동으로 올바른 걷기와 홈트레이닝을 추천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야경, 요가매트, 러닝머신 등을 이용하거나 TV나 동영상 자료를 통해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도 지루함 없이 안전하게

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누구나 쉽게 특정한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는 걷기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걷기운동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더라도 심뇌혈관질환을 낮추고,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비만, 우울증 등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며 8대암(유방암, 대장암, 방광암, 자궁내막암, 식도암, 신장암, 폐암, 위암)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개인적 차이는 있으나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최소 150분을 빠르게 걷을 것을 권하고 있다. 몸을 곧게 세우고 턱을 약간당기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걷기운동은 유지할 이유가 없다.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안정도 중요하다.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의 합성이 '코로나 블루'는 이제 일반명이 됐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평소 소에 비해 불안과 우울감이 증가했고, 20%의 국민은 임상적인 관심이 필요할 정도로 불안을 느꼈다고 한다. 꾸준한 해운 취미생활, 운동, 사람들과 어울림이 대부분 중단되고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불안과

우울감이 급증했을 것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코로나19 정국이 장기화 될 것이고, 불안과 우울을 넘어 분노 감정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진 못하더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타인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나 SNS를 통해 더 많이 소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면서 코로나블루를 극복하면 좋겠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의 방역 지침으로 사회활동의 위축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절박한 생계위험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전 국민이 크고 작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지만 건강까지 잃어서는 안된다. 많은 것을 잃더라도 건강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지켜야 한다. 우리 스스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평생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만성혈관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 그리고 꾸준한 신체활동과 걷기 운동은 물론 끈끈한 가족애 발휘와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신축년 한해를 잘 극복하자.

독자 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주택용 소방시설 잘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와 더불어 겨울철이 되면서 집집마다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화재 관련 통계를 보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주택 화재 사망자가 62%에 달할 정도로 가장 높다.

매년 반복되는 주택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효율적이고 그 능력은 소방차 한 대와 맞먹을 정도로 뛰어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이나 주변 대형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구비가 가능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가정이 많다. 우리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더 안전한 집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자. (고선형·담양소방서 예방반장)

자동차 매달린 부착인형 사고유발 우려

요즘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신기하면서도 재미있는 광경을 종종 보곤 한다. 바로 차량 후면 유리나 스포일러 등지에 차량이 놓은 작고 앙증스러운 인형을 말한다.

최근 젊은층에 유행하고 있는 차량 외부 부착 인형 액세서리는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크기도 손가락 크기에서부터 손바닥 이상은 되어 보이는 대형 인형도 있었다.

자동차 부착인형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가격 또한 고가의 제품이 아닌지라 양면테이프로 부착하게 되어 있는 자동차 액세서리 인형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운전자 개인 취미 또는 선호에 따라 차량 외부에 부착된 인형이 운행중 진력을 잃고 떨어지거나라도 한다면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협할 수도 있고

신기한 앞차의 인형을 쳐다보느라 시선이 분산되어 자칫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도로에 순간 떨어진 인형으로 인해 운전자 상호가 실랑이도 벌어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 물이 들어가거나 부착한지 오래되어 전력이 예전만큼은 아닐 때 만약 고속도로상 인형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뒤차는 참으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작은 인형이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장치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 부착물은 필수 없겠지만 만약에 운행중 떨어진 인형으로 사고가 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물론 도로교통 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덕현·청성경찰서 정보보안과)